

보도시점 2026. 10. 22.(목)
포럼 시작(10:00) 이후

배포 2026. 10. 21.(수)

WHO·코크란 등 글로벌 전문기구 모여 통합돌봄에서 재활의 역할과 전략 논의

- 국립재활원, 2026 WHO 협력 재활 포럼 ‘통합돌봄과 재활’ 개최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10월 22일(목) 오전 10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2026 WHO 협력 재활 포럼’을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해 통합돌봄 시대 재활의 역할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국립재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nrc_kr/streams)

올해 9회째를 맞는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포럼에는 WHO 컨설턴트 폴린 클레이네츠, 시드니대학교 김 버클리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은정 센터장 등이 참석하며, 기조강연, 세션 1·2부,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통합돌봄에서 재활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기조강연으로 코크란*(Cochrane) 재활·기능·장애 분야 책임자가 기능 중심 통합돌봄과 재활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논의의 장을 연다.

* 보건의료 연구 근거를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해 근거 기반 의료와 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1부는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의 재활의 현재’란 주제로 ▲통합돌봄 시대의 지역사회 재활의 방향: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일본의 재활과 돌봄의 연속성 ▲기술기반 돌봄과 재활에 대해 살펴본다.

2부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한 재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재활 재정과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재활 전문인력 구축 ▲돌봄 부담과 재활: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덴마크의 자립지원형 돌봄(reablement)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포럼 발제자들과 함께 ‘돌봄에서 자립으로, 통합돌봄의 다음 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눈다.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포럼이 통합돌봄 시대에 재활의 역할을 살펴보고, 돌봄을 넘어 자립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26 WHO 협력 재활 포럼 포스터 및 프로그램

담당 부서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	책임자	과 장	김온유 (02-901-1883)
		담당자	보건연구사	송경아 (02-901-1543)



2026 WHO 협력 재활포럼

WHO Collaborating International Forum

통합돌봄과 재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Integrated Care and Rehabilitation : Towards Sustainable
Care Systems

2026. 10. 22. THU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5층 하모니스홀 10:00 - 16:30

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10:00-10:05	개회사 김동아 (원장, 국립재활원)	
10:05-10:10	축 사 Shogo Kubota (Coordinator,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기조연설		
10:10-10:40	기능 중심 통합돌봄과 재활의 미래 Charlotte KIEKENS (Director, Cochrane Rehabilitation, Functioning, and Disability, IRCCS Galeazzi – Sant’Ambrogio Hospital)	
[1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의 재활의 현재		
10:40-11:10	통합돌봄 시대의 지역사회 재활의 방향: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김원석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11:10-11:40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재활과 돌봄의 연속성 Takashi Saito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1:40-12:10	기술기반 돌봄과 재활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 국립재활원)	
12:10-13:30	점심시간	
[2부]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한 재활 전략		
13:30-14:00	재활 재정과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Pauline Kleinitz (Consultant, Rehabilitation and Assistive Technology, WHO)	
14:00-14:30	지속가능한 재활 전문인력 구축 Kim Bulkeley (Associate Professor, The University of Sydney)	
14:30-15:00	돌봄 부담과 재활: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한은정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15:00-15:30	국제사례: 돌봄 안에서 재활의 통합 Tine Rostgaard (Professor, Dept. of Social Sciences and Business, Roskilde University)	
15:30-15:50	휴 식	
토론: 돌봄에서 자립으로, 통합돌봄의 다음 과제		
15:50-16:30	좌장: 김용익 (이사장,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패널: Shogo Kubota (Coordinator,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한은정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Kim Bulkeley (Associate Professor, The University of Sydney) Tine Rostgaard (Professor, Dept. of Social Sciences and Business, Roskilde University) Takashi Saito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6:30	폐 회	